

현실주의적 관점이 반영된 보호무역전략의 사례

정찬우 (양명고)

목차

I.서론

II.보호주의 무역사례

가.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사례

나.중국과 호주의 무역갈등사례

다.무역사례의 분석

III.결론

III.참고문헌

I.서론

과거부터 지금까지 무역의 중요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무역은 항상 국제수지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으로서, 국가의 경제를 판가름하는 지표이다. 16세기 말부터 18세기에 걸쳐 유럽 국가들은 국가의 상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항로가 개척된 이후 수출을 증가시키기 위해 존재하였다. 현재 중상주의는 가장 대표적인 보호 무역의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담스미스의 절대우위론과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은 현재의 무역전략의 토대를 만들었다. 또한 산업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 시대를 거쳐 현재의 자유무역과 신보호주의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무역은 국가적인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무역의존도는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있다.

<표1> 대한민국 GDP 대비 수출입 비율

단위: %

년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대비 수출 입비율	101.8	94.2	82.2	76.9	80.5	82.9	80.1	72.9

출처: 대한민국 통계청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은 개발 초기부터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추진했기에, 수출입이 빠르게 확대되었고, 그결과 한국의 GDP 대비 수출입 비율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편이다. OECD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한국의 GNI 대비 수출입 비율은 79.4%로 미국의 35.5%, 일본의 34.1%, 프랑스의 76.2%로 높다.¹

지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기침체와 급격한 변화, 미중간의 무역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건들은 특히나 해외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의 상황에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국가간의 무역전략은 수시로 변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에는 현실주의적 관점, 즉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 관세장벽이나 수입할당제, 또는 수입 및 수출의 금지는 국가가 해당 무역 상대국에게 어느정도 힘의 우위를 가지느냐가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 국가간의 무역갈등이나 규제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를 미중의 무역전쟁이라고 볼 수 있다.²

본고는 국가간의 무역에 있어서 보호무역의 수단인 관세장벽 및 각종 비관세장벽의 사례를 현실주의적 배경에서 탐구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고의 연구질문은 본고에서 제시된 무역사례에서의 힘의 논리가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현재 무역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힘에 논리에 따른 보호무역의 수단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본고의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현실주의의 작용은 그 무역을 진행하는 상대적 선진국

¹ 대한민국 통계청 국가지표체계 (index.go.kr), 2021

² 조국봉(2020), "미중 갈등의 현실주의적 요인과 미래 관계",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에게 보호무역의 주도권을 가져가게 하며, 이것이 국제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결국 다양한 방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국가는 상대적 약소국에 비해 큰 경쟁력을 가질 것이며, 최대한의 국익을 무역으로 얻고자 하는 전략에 따라서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 자유무역 전략에서 보호무역전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역국가와 자국의 파워가 무역에 있어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이 무역전략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국제정치학적 함의를 가진다. 오랜시간동안 적용되어왔던 보호무역전략에서 부터, 1947년 GATT, 1995년 WTO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국가들이 본격적인 자유무역의 길에 발을 들인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관계의 질서에 따라 등장하게된 보호무역주의를 우리는 신보호무역주의라고 부르기 시작했다.³ 이러한 현상의 사례를 분석하는 것으로 앞으로의 보호무역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전략과 그 영향을 예측할 수 있다.

II. 보호주의 무역사례

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사례

197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미중간의 무역이 조금씩 갈등을 맞이하게 된 것은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나, 트럼프 정부의 집권과 동시에 그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2017년 8월 18일,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하여 301조사를 벌이라는 서명을 발표하였다.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취하는 조치는 그 수가 늘어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반덤핑 조치라고 볼 수 있다.⁴ 덤핑(dumping)은 동일재화를 타국에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덤핑으로 인해서 수입국의 해당 산업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경우, 이는 불공정 무역으로 간주되며 반덤핑과세를 부과할 수 있다.⁵

³ 이아휘(2013), "신보호무역주의가 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⁴ 이서봉(2018), "미중 무역분쟁의 우너인과 영향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⁵ 최예화(201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부과 결정요인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표2> 미국 반덤핑제소국가 순위 (1995-2011)

(단위: 건, %)

순위	국가	반덤핑 피조사 건수	ITC피해 확정 건수(비율)	덤핑 관세율
1	중국	107	90(84.1)	158.4
2	인도	23	13(56.5)	44.1
3	한국	31	14(45.2)	27.8
4	일본	33	21(63.6)	104.0
5	독일	16	6(37.5)	78.7
6	멕시코	20	13(65)	26.4
7	남아프리카	16	9(56.3)	121.39
8	캐나다	15	5(33.3)	20.88
	합계	261	171(65.5)	128.5

출처: 한글 논문 최예화 (201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부과 결정요인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에서 Bown C. The Global Untidumping Databases 5.0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의 반덤핑제소국가 순위를 살펴보면, 중국을 향한 반덤핑 피조사건수는 107건으로, 2위인 인도가 23건인 점을 고려했을때, 그 차이가 매우 크다. 또한 두 나라 사이의 관세경쟁도 존재한다. 관세를 인상시키는 것은 상품의 수입원가가 상승한다는 의미이므로, 수요공급 원칙에 따라서 공급이 줄어, 상품의 가격이 오른다. 또한, 공급의 감소로 인해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인상은 무역분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미국이 이런식으로, 중국을 향한 적극적인 보복조치가 가능했던것은 미국통상법 301조 덕분이다. 미국통상법 30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며 차별적이고 모순된 외국의 법률, 정책, 조치를 제거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하고도 가능한 정책을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실제로 301조에 의해서, 2018년 미국은 중국 상품 1333개의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나. 중국과 호주의 무역갈등사례

호주와 중국의 무역마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호주가 행하고있는 반중국 노선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주의 반화웨이 전략을 먼저 이해해야한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의 미중 패권경쟁을 단순한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맞은 자연스러운 기술경쟁에 불과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사이버공간의 체제 및 이념경쟁의 공간으로써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이다. 텐센트나 틱톡, 화웨이와 같은 중국의 사이버 플랫폼들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영국, 뉴질랜드와 같은 FVEY 국가들을 상대로 중국은 5g네트워크 사업을 순조롭게 이어가고 있다.⁶

중국의 계속되는 첨단기술산업 추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기 위하여 미국은 클린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의 사이버 진출을 견제하며, 화웨이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 상무부의 단속 실체 리스트에 올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에서, 호주도 FVEY로서 미국과 함께 반화웨이 전략에 가담하고 있다. 다른 FVEY 회원국들과 서유럽 국가들의 행보에 비하면 상당히 뒤는 행보를 보이고있다. 실제로, 또다른 FVEY회원국인 영국은 2019년 4월, 기존의 화웨이 제품에 대하여 전면금지 조치를 취했으나, 모바일 네트워크의 핵심 부분 공급 제한외의 '에지'에는 부품공급을 허용한 사례가 있다.⁷ 그럼에도 호주는 화웨이를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시켰다. 화웨이뿐만이 아니다. 2020년 4월, 호주는 코로나 19의 발원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2020년 11월 17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베이징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자오 대변인은 "호주는 홍콩·대만·신장 문제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거듭 실수했다"며 지적했다. 호주가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내 재교육 수용소 철폐를 촉구하거나 홍콩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한 점을 언급한 것이다.⁸ 호주는 다양한 반중국적인 행보를 보여왔으며, 결국 중국은 호주산 석탄의 수입을 금

⁶ 유인태(2019), "'화웨이 사태'와 '파이브 아이즈'",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⁷ 유인태(2019), "'화웨이 사태'와 '파이브 아이즈'",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⁸ 인천일보 조혁신(2020) "중국, 호주 반중국 정책 조목조목 비난"

지하였다. 중국은 호주의 가장 큰 석탄수입국으로, 중국의 석탄 구입은 호주 GDP의 약 4%에 이른다. 실제로, 이러한 수입금지 조치로 인해 호주는 약 46조 원의 손실을 입었다.

다. 무역사례의 분석

국가들은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파워를 얻기위해 경쟁한다. 현실주의는 몇가지의 가정을 필요로 한다. 첫째로,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므로, 국가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두번째로,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자이다. 세번째로, 모든 국가는 파워와 함께 국익을 추구한다.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파워는, 결국 국익으로 연결된다. 현실주의 이론에서, 국익은 국제정치라는 이름의 전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다. 파워를 통해 얻는 국익은 국제 정치의 행위 주체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사항이다. 위의 사례처럼, 원래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팩스-아메리카나 체제에 대항하여 현재 중국은 빠르게 성장중이다. 중국의 무역수지 개선과 화웨이를 통한 5g네트워크 사업의 확장은 중국의 파워를 크게 성장시켰다. 따라서 중국은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경제가 한 나라의 다른 분야의 발전 상한선을 나타내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누리고 있는 패권적 지위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경제성장을 억제할 필요가 있었다.

III. 결론

중국이 호주를 대상으로 석탄 수입 금지 결정을 내린것은, 중국이 호주의 석탄수입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은 호주의 최대 수입국이며, 그 석탄수입액은 호주 GDP의 약 4%를 차지할 정도이다. 즉, 중국이 호주와의 무역관계에 있어서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서 자신의 무역전략을 능동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의 미국통상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하여 적극적인 보복 조치를 명시해 놓

은 미국의 법규이다. 이 법규의 또 다른 이름은 '슈퍼301조'이다. 미국이 지금까지 국제질서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위와 위치는 미국에게 있어서 거대한 파워이다. 그 파워를 바탕으로 적극적 무역 보복에 나설 수 있었다.

또한, 파워를 얻기 위하여 무역경쟁을 하는 사례도 발견할 수 있었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을 위한 무역전쟁은 결국 파워를 통한 국익창출을 위한 행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국제무역은 현실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고있음이 확인되었다. FTA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협력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줄 알았던 무역이 다시 신보호주의의 출현과 함께 국제관계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국제질서에서의 우위를 차지함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이 끝없는 무역경쟁을 끝낼 수 있을지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미래예측과 국제관계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협력적 태도에 달려있다.

참고문헌

1.국문자료

조국봉(2020), “미중 갈등의 현실주의적 요인과 미래 관계”,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이아휘(2013), “신보호무역주의가 중국 상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유인태(2019), “'화웨이 사태'와 '파이브 아이즈'”, 전북대학교 국제인문사회학부 교수

이서봉(2018), ”미중 무역분쟁의 우너인과 영향 연구”, 우석대학교 대학원

최예화(2013), ”미국의 대중국 반덤핑관세부과 결정요인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인천일보 조혁신기자(2020.11.18) “중국, 호주 반중국 정책 조목조목 비난”

2.국문 웹사이트

대한민국 통계청통계청: (kostat.go.kr)

국가지표체계: e-나라지표 메인화면 (index.go.kr)